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엄 세 진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아동기라는 특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본생활습관을 구성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생활습관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측정도구 개발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첫째, ‘구인의 탐색과 추출’에서는 전통 아동 교육서 및 ‘효’ 연구, 초등학교 교재,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국내외 척도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지각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자료를 통합하여 제작한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그 내용을 검토 받았다. 둘째, 예비조사에서는 문항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예비 척도를 1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셋째, 본조사에서는 37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 반분신뢰도를 구하였다. 또한 84명의 자료를 가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을 구성하는 예비 요인은 인사, 언어, 수신, 신의, 정직, 청결, 자율, 책임, 정리정돈, 절약, 건강, 효도, 규칙, 그리고 애국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단의 의견통합과정을 통해 내용 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46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대표하는 요인으로서는 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예절, 건강, 청결, 그리고 자율로 정리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반분신뢰도,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기본생활습관, 척도 개발, 타당화, 신뢰도, 타당도

1)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강사 (E-mail : sjeom@korea.ac.kr)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I. 서론

기본생활습관이란 한 개인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익혀서 습관화하는 것으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된 사회 규범과 원리에 따라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삶의 양식에 적응하며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교육부, 1994; 이원영·방인옥·박찬옥, 1992).

기본생활습관의 영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과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하는 일까지도 포함한다(경기도 교육청, 1991; 교육부, 1997). 따라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한 적절한 훈련 과정이 결여되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 개인의 삶과, 나아가 사회나 국가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수행된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연구들(박명순, 1999; 연영아, 1993; 정현아, 1994)을 살펴보면 초기의 상당수 연구들은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가소성이 풍부한 유아기를 지나면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 그리고 영속성이 있으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 또는 민주 질서의 구축은 유아기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박찬옥, 1994; 정근수, 2000).

하지만 최근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교육과 관계해서도 2002년 월드컵 개최 5년을 앞둔 시점에서 2002 월드

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이하 문민협)라는 문화시민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문민협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친절, 안정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질서, 기분 좋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청결,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정직과 책임, 그리고 모든 예절과 행동규범의 근본이 되는 생명존중과 인간존중이라는 다섯 가지 기본 덕목들을 익혀서 습관화할 것을 강조하였다(문용린, 2005;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1999). 이처럼 기본생활습관은 이미 인성교육과 시민의식 교육에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이라는 용어 역시 유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연령층에게 적용되는 용어로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기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명자, 2001; 라현심, 2001; 정근영, 2003)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먼저, 습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습이나 반복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습관이 정형화 또는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동안 반복적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안철수, 1983). 즉 기본생활습관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이 요구되는 바 유아기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본생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깨닫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아기는 인지적으로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을 익히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생활습관의 이해가 어려운 유아들을 대상으로 외형

적 행동만을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피상적 교육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5; Kuhmerker, 1991). 이에 반해 아동기는 인지적으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지향이 가능해지고, 사회성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타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Erikson, 1950; Gelman, 1969; Inhelder & Piaget, 1958; Piaget, 1932).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중요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기본생활습관을 전생애 발달로 이해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몇몇 연구(김태자, 2000; 안인환, 1993)에 따르면, 기본생활습관에 포함되는 덕목들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유사하지만 각각의 발달 단계에 맞게 그 내용과 행동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청결, 질서, 예절, 그리고 절제와 같은 기본생활습관 덕목들은 모든 발달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유아기에는 주로 가정안에서 익혀야 할 개인 중심의 내용으로 하위 덕목이 구성되는 반면에,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은 물론이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 보다 더 강화된다. 따라서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기본생활습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와 달리 아동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행동에 대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연구들(이연숙, 2002; 조영순, 1994; 허정광, 1995)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주로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들에 의해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학위논문이나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전문 연구보다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출간하는 보고서 형식(예: 교육논단, 교육특정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연구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측정도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셋째, 기본생활습관은 오랜 시간동안 고유한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 온 규범과 가치에 바탕을 두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다행히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통 교육을 기본생활습관에 접목한 연구들(강혜원·유권중·박충식, 2001; 박혜상, 2003; 방인옥, 2002)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외국의 문헌을 살펴보면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감 등을 교육하는 ‘민주주의 리더십(democratic leadership)’(William, 1998) 둘째, 정직, 책임감, 동정, 인내, 애국심, 정의, 자기신뢰, 자기수양, 성실 등의 시민의식(citizenship)을 양성하기 위한 ‘인성교육(character education)’(Andrew, 2001; Marlow, 1998; Texas Education Agency, 2000) 셋째, 선생님을 부를 때는 Mr., Mrs., Miss 또는 Ms 대신 “Ma'am” 또는 “Sir”로 칭해야 하는 것, 문을 여닫는 것, 상황에 맞는 악수법 등을 교육하는 ‘매너(manners)’(Burns, 2003) 넷째, 우정을 발달시키고, 학우와 교사와의 협동적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David & Gary, 2001; Warash & Lazorchak, 1999)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문화마다 존재하는 관습과 전통에 따른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

본생활습관이 추구하는 개념과 덕목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문화-보편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습과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 온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화-특수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이은화·김희진·이승연, 199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5).

한편,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 즉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및 인간 존중의 가치관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교육부, 1998). 이러한 인성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이애숙,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후 인성교육 등에 도움을 제공할 목적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 전통 문헌 고찰, 국내외 기본생활습관 문헌 고찰, 그리고 사회적 인식 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본생활습관 척도 문항은 판단과 행동에서 불일치가 일어나기 쉬운 가치나 규범 또는 태도적 성격의 문항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척도와 차별화를 위하여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은 인지·정서적 발달에서 만 9~10세보다는 유치원 연령인 만 4, 5, 6세 유아와 동질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지기 때문이다(김명자, 2001; 박정환, 1998; 안인환, 1993).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기

본생활습관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기본생활습관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을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을 구성하는 요인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의 타당도 관련 증거들은 적절한가?

연구문제 3.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을 구성하는 요인에 기초하여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 관련 증거들은 적절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구인의 탐색과 추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 구성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첫째, 전통 아동 교육 교재에 나타난 기본생활습관 내용과 정옥분 등(1996)이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한 ‘효’ 가치관을 현대적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학동기 자녀의 자효(子孝)에 관한 가정교육 지침을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둘째, 현대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을 교육하기 위한 초등 교재인 바른 생활과 도덕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참고하였다. 셋째, 기존에 소개되어 있는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국내외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문항을 분석하고 참고하였다. 넷째,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충청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각각 1개씩을 표집하였다. 이들 학교의 3학년과 4학년 아동 250명(남 125, 여 125)과 학부모 250명,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90명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8일에서 3월 15일까지 기본생활습관에 관해 자유응답 형식의 질문지(아동용, 부모용, 교사용)를 배부하였다. 회수한 질문지는 아동용 230부(회수율 92%), 부모용 199부(회수율 79.6%), 그리고 교사용 86부(회수율 95.6%)였다. 이들 중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아동 225명, 부모 199명, 그리고 교사 86명이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은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국내외 문헌, 기존에 보고된 척도 그리고 초등학생, 부모,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142문항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142문항을 산출하는 데 근거한 이론적인 기본생활습관 구성개념은 총 14가지로, 구체적으로는 인사, 언어, 수신, 신의, 정직, 청결, 자율, 책임, 정리정돈, 절약, 건강, 효도, 규칙, 그리고 애국이다.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의 전문가 검토

먼저,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 구성에서 정리된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에 대해 2005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에 걸쳐 3명의 아동학 전공 전문가와 1명의 교육학 전공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은 142문항에서 101문항으로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101문항)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이를 위해 교육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아동학 전공 교수 2명, 방과후아동 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초등학교 교장 1명,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4명을 대상으로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변형된 델파이방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부 문항이 수정되거나 첨가되어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은 104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1점)’, ‘가끔 그렇게 한다(2점)’, ‘자주 그렇게 한다(3점)’, ‘항상 그렇게 한다(4점)’의 4점 리커트식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예비조사에서는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예비 척도에 대한 문항양호도와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구인의 탐색과 추출 과정을 통해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가 확인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예비 척도(104문항)를 2005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3~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다. 회수율은 100%였으나, 실제 분석에는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8부)와 패턴화된 응답을 한 경우(2부)를 제외한 90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작성에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예비조사의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 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 문항-전체 상관, 그리고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구

하여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통계결과와 함께 내용타당도 측면을 고려한 후 문항의 최종 탈락유무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총 104개 문항 중 평균이 너무 높은 문항(평균 3.5 이상), 상대도수분포가 지나치게 한 쪽으로 기울어진 문항(한 번호에 60% 이상 응답된 경우), 하위요인별 상관관계가 낮은 문항(.3 이하), 하위요인별 문항-척도 전체의 상관이 낮은 문항(.4 이하), 그리고 문항 제거시 내적합치도가 높아지는 문항 등은 59문항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아동학 박사 2인의 자문을 얻어 59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고려한 결과, 이들 59문항 중에서 35문항을 제거하였다. 이처럼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타당도를 고려한 이유는 지나치게 산술적인 자료분석 결과에만 의존해서 문항을 삭제할 경우, 본 연구자가 처음 상정한 예비 구인 14개(인사, 언어, 수신, 신의, 정직, 청결, 자율, 책임, 정리정돈, 절약, 건강, 효도, 규칙, 애국)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산술적인 자료분석 결과와 함께 내용타당도를 고려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내용타당도 측면을 고려하여 제거하지 않은 24문항 중 일부는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새롭게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조사에 사용할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문항은 최종 6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조사

5단계는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개

발을 위한 본조사 단계로,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서울시(강남구, 관악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48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69문항)를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429부(회수율 89.4%)였으나, 이들 중 부실하게 기재되거나 패턴화된 응답을 한 자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374명이었다. 질문지 작성에는 약 15~20 정도 소요되었다.

먼저, 초등학생 374명을 대상으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공통분산과 고유분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통요인분석의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공통성(communality)의 초기값은 중다상관제곱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를 사용하였다. 기초구조의 추출을 위해서는 반복주축 요인분석법을 사용하였고, 요인구조의 회전은 Varimax 방식으로 직각회전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재검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05년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본조사 자료를 수집한 바 있는 관악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3학년, 동대문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그리고 동작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총 115명에게 다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중 앞서 실시한 본조사 질문지와 쌍을 맞출 수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 등을 제외하고 84부를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을 구성하는 요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을 구성하는 데 있어 먼저, 전통 아동 교육 교재인 소학(小學), 명심보감(明心寶鑑), 동몽선습(童蒙先習), 동몽수지(童蒙須知), 격몽요결(擊蒙要訣), 계몽편(啓蒙編), 그리고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기본생활습관 내용과 정옥분 등(1996)이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한 ‘효’ 가치관을 현대적 활용방안으로 제시한 학동기 자녀의 자효(子孝)에 관한 가정교육 지침을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둘째, 현대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을 교육하기 위한 초등 교재인 바른 생활과 도덕과의 내용을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합니다(바른생활 1)”, “내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바른 생활 2)”, “몸을 잘 씻고 주변을 깨끗이 합니다(도덕 3)”,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다니지 않습니다(도덕 4)”, “컴퓨터 오락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하겠습니다(도덕 5)”, 그리고 “내 몸을 소중히 하겠습니다(도덕 6)” 등을 추출하였다.

셋째, 기존에 소개되어 있는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국내외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문항을 분석하고 참고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불량식품을 사 먹지 않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5)”, “음식을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담아먹고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갖는다(임현순, 1995)”, “나는 숙제를 스스로 하려고 노력한다(Rominger & Kariuki, 1997)”, “부모님에게 아침에 문안인사를 한다(박인숙, 1998)”, “복도에서의 규칙을 지킨다(Marg, Adam, &

Mark, 2002)” 그리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스스로 손발을 씻는다(정권영, 2003)” 등을 추출하였다.

넷째,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지각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과 충청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각각 1개씩을 표집하였다. 이들 학교의 3~4학년 학생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기본생활습관에 관해 자유응답 형식의 질문지(아동용, 부모용, 교사용)를 배부하였다. 질문 내용으로는 기본생활습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기본생활습관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 결과,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발을 꼭 씻는다”, “공공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준법정신을 갖는다” 등을 추출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전통 교육과 현대 교육, 국내외 척도,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지각에 관한 조사 자료의 결과들을 종합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공통되는 이론적·잠재적 구성개념들이 추출되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부모님과 웃어른께 바르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행동을 ‘인사(10문항)’로, 부모님과 웃어른께 높임말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행동을 ‘언어(11문항)’로, 웃어른에게 갖추어야 할 바른 몸가짐 그리고 수업시간이나 식사시간 등에 지켜야 할 바른 행동을 ‘수신(11문항)’으로, 친구 간에 의리를 지키고 친구의 어려운 일을 함께 도와주는 행동을 ‘신의(10문항)’로, 남을 속이거나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행동을

‘정직(8문항)’으로, 몸과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는 행동을 ‘청결(10문항)’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행동을 ‘자율(10문항)’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나 의무를 완수하는 행동을 ‘책임(10문항)’으로, 사용한 물건이나 소지품을 제자리에 두는 행동을 ‘정리정돈(10문항)’으로, 개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공공 물건을 아껴쓰는 행동을 ‘절약(11문항)’으로,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한 행동을 ‘건강(9문항)’으로,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웃어른을 섬기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효도(11문항)’로,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교통법규, 학교규칙 또는 공공예절에 관한 행동을 ‘규칙(12문항)’으로,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행동을 ‘애국(9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요약하면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예비문항은 최종 142문항으로, 이들 142문항을 산출하는 데 근거한 이론적인 기본생활습관 구성 요인은 총 14가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사, 언어, 수신, 신의, 정직, 청결, 자율, 책임, 정리정돈, 절약, 건강, 효도, 규칙, 그리고 애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문항과 구성 요인들은 본조사 결과에 의해 추출된 새로운 요인들을 명명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타당도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습관 척도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즉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 고려된 질적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먼저, 2005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3명의 아동학 전문가와 1명의 교육학 전문가에게 142문항으로 구성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의 각 구성 요인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첫째, 기본생활습관 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적합한가 둘째,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가 셋째,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응답하기에 어려움은 없는가(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진 않은가?) 등이다. 이와 같은 수량적인 방법이 아닌 논리적 접근방법을 사용한 내용타당도 검토를 통해, 예비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또한 각 구성 요인별로 새로운 문항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기본생활습관 예비문항은 142문항에서 101문항으로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교육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아동학 전공 교수 2명, 방과후아동 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초등학교 교장 1명,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4명을 대상으로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변형된 델파이방법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들 전문가 집단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이처럼 변형된 델파이방법을 실시한 이유는 교육현장 전문가들과 보다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통해 문항 내용의 개연성을 타진하고, 실제 적용가능성을 높여서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변형된 델파이방법의 응답방식은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

표 1. 델파이방법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 목록

번호	성별	교육경력 (년수)	최종 학위	분야
1	여	18	박사	아동학 전공 교수
2	여	5	박사	아동학 전공 교수
3	여	10	박사	방과후아동 전문가
4	여	9	석사	방과후아동 전문가
5	여	15	석사	어린이집 원장
6	남	37	석사	초등학교 교장
7	여	17	학사	초등학교 교사
8	남	35	석사	초등학교 교사
9	여	25	학사	초등학교 교사
10	남	39	학사	초등학교 교사

본생활습관 행동 문항으로서……” ‘중요하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매우 중요하다(3점)’의 3점 리커트식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하께서 생각하실 때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행동 문항으로 추가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라는 개방형 질문을 함께 하였다.

변형된 델파이방법을 실시한 후 산출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 구성 요인의 문항들 평균의 범위는 2.1에서 3.0 사이였다. 그리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00에서 .70 사이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Kim, Lee, Suen, & Lee, 2002)에서는 3점 리커트식의 델파이방법의 경우에 평균 점수가 2점 이하인 문항은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항으로 간주되어 삭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 점수가 2점 이하인 경우가 한 문항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의 범위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전문가 간의 합

의가 상당수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델파이방법은 동일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보통 3회 이상 반복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회 조사에서 전문가 간의 상당한 수준의 의견일치를 보인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델파이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도 새롭게 3문항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신에 경우 “문을 열고 닫을 때 사람이 오면 문을 잡고 기다려준다”와 “웃어른께 물건을 두 손으로 드리고 두 손으로 받는다”, 그리고 규칙에서는 “자동차나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주변을 살핀다” 등이 추가되었다.

요약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변형된 델파이방법을 통해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기본생활습관 예비문항은 ‘수신’에서 2문항과 ‘규칙’에서 1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최종 104문항으로 수정되었다.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와 구성타당도

먼저,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가 확인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예비 척도(104문항)에 대해 초등학교 3~6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같은 예비요인 내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는 수렴타당도를, 반면에 다른 예비요인 간에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이는 변별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예비조사를 통해 본조사에 사용될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문항은 104문항에서 69문항으로 수정하였다.

표 2.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문항의 요인분석 후 고유치 및 설명분산

요인	고유치	고유치차이	설명분산	누적설명분산
1	15.621	13.016	22.640	22.640
2	2.605	0.263	3.775	26.415
3	2.342	0.117	3.394	29.809
4	2.225	0.257	3.225	33.034
5	1.968	0.126	2.853	35.887
6	1.842	0.113	2.670	38.557
7	1.729	0.156	2.506	41.063
8	1.573	0.113	2.279	43.342
9	1.460	0.022	2.116	45.459
10	1.438	0.132	2.084	47.543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69 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조사 자료에 대해 통계패키지 SPSS 12.0 판의 요인분석 절차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 방법 중에서 공통요인모형의 하나인 반복주축 요인분석법(principal axis factoring with iteration)으로 분석하였을 때 고유치(eigen value)와 각 요인의 설명분산은 다음 표 2와 같다.

공통요인모형에서 반복주축 요인분석법 사용시 요인 수를 결정할 때 스크리 검사, 누적 분산비율, 그리고 해석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4요인과 5요인 사이, 7요인과 8요인 사이에서 고유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누적분산비율을 살펴보면 4요인까지에서 전체 분산의 33%, 7요인까지에서 전체분산의 41%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크리 검사 및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7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개수를 7개로 주고 직각회전(Varimax) 후 1차 요인구조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 최대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과 두 요인 이상에 걸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그리고 타 요인과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등 총 19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 나머지 50문항에 대해 요인의 수를 7개로 놓고 직각회전시켜 다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분석 결과에 대해 4명의 아동학 전문가와 1명의 교육학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통해, 해석 차원에서 다른 문항과 어울리지 못하는 4문항을 제외시켜 최종 46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7개 요인의 총 설명분산은 36.7%로 나타났다. 직각회전 후 산출된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요인에 대한 명칭은 첫째, 기본적으로 선정된 문항들이 척도의 예비문항 선정 시 이론적 개념으로 정한 범주들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참고하여 정하였다. 둘째, 한 요인 내에 예비문항 선정 시 정한 여러 범주에 속하는 문항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들 문항의 저변에 잠재된 공통 요인의 개념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추정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해석 시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중심으로 명칭을 정하였다. 7개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9문항으로 전체 설명분산의 20.58%를 설명하는 주요인이다. 그리고 예비요인 중 ‘수신’에 해당되는 17, 45, 58, 3, 31번 문항과 ‘규칙’에 속하는 13, 41, 27, 68문항으로 구성된다. ‘수신’과 ‘규칙’이라는 예비요인으로 구성된 첫 번째 요인의 저변에는 공통적으로 나의 안녕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가정과 사회에서 설정해 놓은

표 3.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최종 문항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

번호	문항 내용	요인							b^2
		1	2	3	4	5	6	7	
17	문을 열고 닫을 때 ‘깡’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여닫는다.	.56	.02	.11	.10	.09	-.02	.13	.36
13	길이나 복도를 걸을 때나 계단을 올라갈 때 좌측 통행을 한다.	.52	.20	.14	.07	.12	.17	-.02	.44
41	대중교통(기차, 버스,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조용히 한다.	.48	.21	.08	.20	.14	.21	-.02	.43
27	공공장소(식당, 공연장, 경기장, 박물관, 병원 등)에서 차례를 지킨다.	.47	.15	.25	.13	.17	.19	-.00	.44
45	식사도중 왔다갔다 하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45	.02	.15	.20	.08	.07	.13	.34
58	입 안에 음식을 넣은 채로 말하지 않는다.	.45	.18	.17	.18	.11	.17	.13	.41
68	자동차나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주변을 살핀다.	.44	.27	.09	.07	.13	.18	.04	.40
3	어른이 계시면 바닥이나 쇼파에 누워 있지 않는다.	.43	.15	.15	.14	-.03	-.00	.09	.29
31	책을 읽을 때 똑바로 앉아서 읽는다.	.39	.14	.16	.14	.11	-.04	.19	.33
64	손님의 신발을 현관 앞에 가지런히 둔다.	.16	.67	.13	.09	.06	.01	.14	.51
51	신발을 벗은 다음 신발장이나 현관 앞에 가지런히 둔다.	.18	.67	.16	.11	.11	.22	.10	.55
9	학교와 우리집 현관의 신발장을 정리정돈한다.	.08	.57	.11	.15	-.08	.05	.15	.41
37	옷을 벗고 나면 옷걸이에 걸어두거나 잘 개어놓는다.	.18	.51	.20	.13	.10	.12	.18	.43
23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둔다.	.23	.49	.32	.10	.22	.12	.10	.47
52	교과서, 참고서 등을 더럽히거나 낙서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용한다.	.27	.34	.31	.03	.26	.21	.09	.43
42	국경일에는 집에 국기가 걸렸는지 확인해 본다.	.15	.34	.05	.14	.08	.08	.15	.28
63	청소 시간에 내가 맡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다.	.08	.19	.60	.17	.03	.20	.05	.48
8	자기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다.	.18	.13	.56	.21	.04	-.01	.11	.43
50	특별한 이유없이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는다.	.10	.05	.56	.21	-.03	.14	.04	.39
18	친구의 작은 실수를 선생님께 고자질하지 않는다.	.21	-.01	.46	.17	.10	.08	.10	.34
22	학교 수업 시간 전에 책과 준비물을 갖다 놓는다.	.13	.20	.45	.04	-.02	.06	.08	.30
32	친구가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했으면 빌려준다.	.20	.20	.38	.14	.28	.12	.10	.41
46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충고해 준다.	.12	.14	.34	.12	.19	.08	.10	.31
4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	.17	.11	.33	.03	.09	.12	.16	.30

표 3. 계속

번호	문항 내용	요인							b^2
		1	2	3	4	5	6	7	
29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나가실 때 현관(문)까지 나와서 인사를 드린다.	.15	.05	.09	.64	.08	.18	-.02	.45
43	부모님이 외출하시거나 돌아오시면 현관(문)까지 나와서 인사를 드린다.	.09	.16	.05	.64	.06	.07	.02	.42
57	외출하기 전에 집안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나간다.	.22	.11	.21	.56	.05	.19	.07	.45
15	선생님을 만나면 인사를 드린다.	.16	-.00	.19	.52	.07	.09	.10	.36
1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아침인사를 드린다.	.10	.14	.07	.37	.11	-.02	.14	.25
60	TV나 비디오를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동안만 본다.	.04	.11	.14	.33	.22	.12	.12	.30
30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한 경우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다.	.22	.08	.23	.32	.15	.03	.17	.35
2	부모님과 웃어른께 높임말을 사용한다.	.12	.10	.16	.32	.08	-.00	.05	.23
25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05	.06	.09	.14	.62	.14	.03	.39
39	식사시간이 다가올 때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	.08	.01	.06	.10	.60	.05	.12	.36
53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먹는다.	.18	.09	.04	.04	.60	-.03	.05	.38
66	식사후에 곧바로 눕지 않는다.	.19	.05	-.01	.05	.57	.03	.06	.37
11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다.	.06	.03	.08	.11	.53	.03	.02	.35
61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손을 씻는다.	.16	.03	.14	.15	.05	.71	.05	.50
6	양치질을 매일 하루에 두 번 이상 한다.	-.02	.14	.16	.19	.02	.58	.16	.42
48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다.	.16	.11	.11	-.01	.10	.56	.15	.40
20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다.	.18	.21	.16	.19	.07	.52	.17	.45
62	아침에 집안 어른들이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난다.	.04	.10	.04	.07	.02	.04	.59	.33
7	자기 방과 책상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청소한다.	.10	.19	.13	.12	.07	.07	.57	.43
49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줍는다.	.06	.09	.07	.00	.05	.07	.50	.28
35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숙제를 스스로 한다.	.10	.18	.19	.07	.13	.27	.49	.41
21	다음 날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혼자서 챙긴다(꼭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한다).	.19	.07	.14	.21	.10	.23	.48	.43
고유치		9.47	1.67	1.43	1.28	1.10	.97	.95	
설명분산		20.58	3.63	3.11	2.79	2.39	2.10	2.07	
누적설명분산		20.58	24.20	27.31	30.10	32.49	34.59	36.66	

공공 규칙과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기에, 이를 ‘질서’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7문항으로 전체 설명분산의 3.63%를 설명한다.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64, 51, 9, 37, 23번 문항은 ‘정리정돈’이라는 예비요인에 속했던 문항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2번 문항은 ‘절약’에, 42번 문항은 ‘애국’이라는 예비요인에 해당되며, 두 문항 모두 요인부하량이 낮았다. 하지만 이들 문항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내 소유물과 타인의 소유물 나아가 우리 모두의 소유물에 대해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물건과 자기 주변을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동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요인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을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정리정돈’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 설명분산의 3.11%를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63, 8, 50, 22번 문항은 ‘책임’, 그리고 18번 문항은 ‘신의’라는 예비요인에 속해있다. 또한 낮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32, 46, 4번 문항 역시 ‘신의’라는 예비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 번째 요인은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남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 타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주어진 책임을 바르게 수행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신뢰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의와 책임’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 설명분산의 2.79%를 설명한다. 그 중에서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29, 43, 57, 15, 1번 문항은 ‘인사’라

는 예비요인에 해당된다. 나머지 60번 문항은 ‘정직’에, 그리고 30번과 2번 문항은 ‘언어’라는 예비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 번째 요인은 공통적으로 나를 먼저 앞세우기 보다는 나 아닌 타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예의범절에 관한 행동과 관련된다. 즉 타인을 예우하기 위해 때와 장소에 맞는 인사법과 언행을 구사하며 또한 표리부동하지 않고 진실된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되므로, ‘예절’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 설명분산의 2.39%를 설명한다. 5개 문항 모두가 ‘건강’이라는 예비요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섯 번째 요인은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바, 이를 ‘건강’으로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요인은 4문항으로 전체 설명분산의 2.10%를 설명한다. 이들 문항 전부는 ‘청결’이라는 예비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섯 번째 요인은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손발씻기, 이닦기, 쓰레기 바르게 처리하기 등을 통해 자기 몸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환경을 보존하는 등 깨끗한 생활태도를 갖는 행동을 의미하므로 ‘청결’로 명명하였다.

일곱 번째 요인은 5문항으로 전체 설명분산의 2.07%를 설명한다. 5개 문항 모두가 예비요인에서 ‘자율’에 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이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은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서 해 나가는 행동을 뜻한다. 여기서는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남의 간섭이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즉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여 실천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자율’로 명명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 및 내적합치도, 그리고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얼마나 안정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지 3주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여 하위요인별로 두 점수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검사-재검사 간의 하위요인별 상관계수가 .682에서 .814 사이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상관계수는 .878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높게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

의 동질적인 개념을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합치도인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전체의 Cronbach의 α 계수는 .916이었고, 각각의 하위요인은 .726에서 .799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총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이들 점수 간의 관련성을 반분신뢰도(전후법)로 산출해 본 결과, 각각의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675에서 .763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922로 높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라는 문화적 맥락과 아동기라는 특정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본생활습관을 구성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생활습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 문항은 인사, 언어, 수신, 신의, 정직, 청결, 자

표 4.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신뢰도

하위요인	검사-재검사 신뢰도 ($n=84$)	Cronbach의 α ($n=374$)	반분신뢰도 ($n=374$)
1 질서	.784	.795	.763
2 정리정돈	.716	.799	.729
3 신의와 책임	.761	.768	.722
4 예절	.814	.752	.694
5 건강	.729	.741	.738
6 청결	.682	.757	.762
7 자율	.767	.726	.675
전 체	.878	.916	.922

을, 책임, 정리정돈, 절약, 건강, 효도, 규칙, 그리고 애국이라는 14가지 구성개념을 가진 최종 142문항으로 정리되었다. 정리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예비문항과 구인에 서 몇 가지 특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본조사에서 추출된 새로운 요인들을 명명하였다.

첫째, ‘인사’, ‘언어’, ‘수신’, ‘신의’, 그리고 ‘효도’는 전통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중요한 기본생활습관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본생활습관 척도의 예비 구인 가운데 ‘정직’, ‘청결’, ‘자율’, ‘책임’, ‘정리정돈’, ‘절약’, ‘건강’, ‘규칙’, 그리고 ‘애국’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전통 문헌에서 일부 추출되었으나, 이들 구인들은 현대에 와서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전통 사회에서는 ‘수신’, ‘신의’, 그리고 ‘효도’와 같은 예비 구인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효도’라는 독립된 예비 구인을 상정하였으나 사실상 기본생활습관 척도 모든 구인에 걸쳐 효도가 기본 전제가 된다. 왜냐하면, 효란 나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주체적 자각과 함께 나의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여, 나의 생명의 근원에 대한 사랑(부모, 선조에 대한 사랑)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 사회, 국가, 공동선으로의 시간적·공간적 확충을 말한다(임동근, 1983; 채무송, 1995).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의 모든 하위 구인이 바로 ‘효’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효’를 거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미시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즉 기본생활습관의 구체적인 행동 덕목 중 하나로서 ‘효도’라는 하위 구인을 상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

활습관 예비 구인들의 상당수가 오랜 기간 조상들 대대로 계승되어 온 전통적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현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도록 재해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초등 교육과 사회의 일반적인 지각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문화적 고유성과 현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적절히 조화된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한편,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인(질서, 정리정돈, 신의와 책임, 예절, 건강, 청결, 자율)으로 나타난 개념을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전통과 현대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늘날의 ‘질서’는 전통 교육의 구용(九容)¹⁾과 구사(九思)²⁾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통 교육에서는 구용과 구사의 실천을 통해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지런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질서’에서는 이러한 가르침

1) 구용(九容): 발은 무겁게 눌러야 한다(足容重). 손은 공손히 눌러야 한다(手容恭). 눈은 단정하게 떠야 한다(目容端). 입은 다물고 있어야 한다(口容止). 목소리는 조용하게 내야 한다(聲容靜). 머리는 곧게 가져야 한다(頭容直). 기운은 엄숙하게 가져야 한다(氣容肅). 서 있는 것은 덕(德)이 있어 보이도록 반듯하게 해야 한다(立容德). 얼굴빛은 씩씩하게 가져야 한다(色容莊).

2) 구사(九思): 물건을 볼 때는 밝은 것을 생각하라(視思明). 소리를 들을 때는 귀밝은 것을 생각하라(聽思聰). 얼굴빛은 온화할 것을 생각하라(色思溫). 몸 모양은 공손한 것을 생각하라(貌思恭). 말할 때에는 충성된 것을 생각하라(言思忠). 일할 때에는 공경함을 생각하라(事思敬). 의심하는 일이 있으면 남에게 물을 것을 생각하라(疑思問). 분이 날 때는 어지러운 것을 생각하라(分思難). 얻는 물건이 있거든 의리를 생각하라(見得思義).

과 함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 교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전통 사회에서의 ‘정리정돈’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먼지 소제하는 일은 시간에 구애하지 말고, 벼루는 5일에 한 번씩 씻고, 이불·요·자리는 3일에 한 번씩 털라. 책꽂이는 흐트러질 때마다 정리하고, 여름철에는 아침저녁으로 방의 벼루를 잡아 깨끗이 하라(사소절의 동규(童規))”에서 보여지듯, 전통 교육에서의 ‘정리정돈’이란 주변 환경과 자신의 물건들을 깨끗이 다루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오늘날의 ‘정리정돈’ 역시 그 내용이 전통 교육서에 나타난 ‘정리정돈’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현대의 ‘정리정돈’에서는 그 대상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물건과 환경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신의와 책임’의 하위 문항들은 격몽요결의 접인장(接人章)과 처세장(處世章)에서, 또는 계몽편의 인편(人篇)과 같이 사람됨 도리를 강조하는 아동 교육서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안경애, 1991; 이상기, 2001). 예를 들면, 격몽요결의 접인장에 따르면 “그가 나에게 이치에 맞도록 가르쳐주고 잘못이 없도록 타일러서 주의시키는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나의 결점을 다스려야 한다”와 같이 동몽교재들에서는 본심을 잃지 말고 도를 행하는 것은 물론 청렴 결백하게 자신의 말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덕목, 그리고 좋은 벼를 사귀기 위해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신의와 책임’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의와 책임’에서는 전통 교육에 비해 아동이 접할 수 있

는 사건과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정의 생활영역까지도 확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현대의 ‘예절’은 나 아닌 타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의 전통적 ‘효’ 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효’의 대상은 내 부모만 존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웃어른을 섬기고 모시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동몽수지에 따르면 자신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 웃어른에 대한 공경을 예라고 생각하였다(방인옥, 1998). 따라서 본 연구의 ‘예절’은 효와 예의 산물이며, 이를 행하기 위해 부모와 웃어른에 대해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적절한 상황과 대상에 따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몽수지에 따르면 음식을 먹을 때 좋고 나쁜 것을 타박하지 않아야 하며,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방인옥, 1998). 또한 음식을 먹을 때의 예절에서 오른손으로 수저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음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지 말 것과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수저를 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류점숙, 1992). 즉 전통 교육에서는 건강을 위해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것은 물론 식사시 지켜야 할 예의를 중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오늘날의 ‘건강’ 역시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전통 문헌 중에서 동몽수지의 의복관구(衣服冠履)에 따르면, 몸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손지은, 2002). 예를 들어, “대체로 사람이 됨에는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정제해야 하니, 관·두포·옷·신·버선으로 부터 모두 반드시 매만지고 애호하여 항상 정결하고, 정제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청결’ 역시 손씻기, 양치질하기, 그리고 주변 깨끗이 하기 등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전통 교육과 현대 교육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아동에게 청결한 몸과 주변의 청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덕목을 통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원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학의 명륜(明倫)편에서는 “모든 안팎의 사람들은 첫닭이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을 입고, 베개와 잠자리를 걷는다”라고 하였다(한광옥, 1999). 오늘날의 ‘자율’에서도 전통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누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기, 숙제하기, 준비물 준비하기 등과 같은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통 사회의 기본생활습관 교육은 머리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손발로 하는 교육 즉 행동과 생각이 어긋남이 없는 지행합일을 지향하고 있다(신성자, 1998). 그리고 전통 교육서에서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조그만 행실을 반듯하게 하는 생활 속의 작은 일부터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보았다(류철선, 2003). 그런데 오늘날 기본생활습관 교육 역시 실천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과 현대의 기본생활습관이 추구하는 방향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현대로 접어들면서 기본생활습관에서 다루는 내용과 상황이 보다 더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 내적합치도인 Cronbach의 α 계수, 그리고 반분신뢰도(전후법)를 구하였다. 그 결과 기본생활습관의 하위요인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상관계수가 ‘질서(9문항)’ .784, ‘정리정돈(7문항)’ .716, ‘신의와 책임(8문항)’ .761, ‘예절(8문항)’ .814, ‘건강(5문항)’ .729, ‘청결(4문항)’ .682, ‘자율(5문항)’ .767, 그리고 ‘전체(50문항)’ .878로 나타나 시간적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높게 보고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에서 높은 신뢰도가 나타난 이유는 첫째, 아동학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여러 차례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들에 의해 기본생활습관 측정 문항들이 일부 수정, 삭제, 혹은 새롭게 첨가되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척도 문항으로서의 적합성을 갖추어 나갔다.

둘째, 예비조사를 통하여 일부 문항을 삭제 혹은 수정한 후 문항변별도가 높은 문항만을 선별,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는 선행 연구들(한국 교육과정평가원, 1995; 이은화 등, 1996)에 비해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타당도와 신뢰도의 증거가 확인된 기본생활습관 척도가 전무한 실정에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여 한국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척도를 개발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량적인 방법을 지양했다. 즉 일차적으로는 소규모 전문가 집단에 의해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가지고 문항을 정제하였으며, 나아가 학계와 현장에 종사하는 1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이라는 새로운 의견 수렴방식을 채택하여 내용타당도와 사회적 타당도를 살펴본 점에서 두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의 기본생활습관 척도는 아동이 지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기본생활에 대해 다각적인 이해를 위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의 증거를 내용타당도, 사회적 타당도, 수렴 타당도, 변별타당도, 그리고 구성타당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구성타당도의 경우, 7개 요인의 총 설명분산은 36.7%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구성타당도의 보강과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기본생활습관의 공인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통한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대상은 여러 초등학교의 다양한 학급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보다는 한두 학급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기본생활습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의 해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즉 학

년차이가 아닌 그 학급을 운영하는 담임선생님의 영향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교사의 학급운영 양태 등에 따라서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여러 학교의 다양한 학급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초등학생들은 학년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자 아동보다는 여자 아동이 기본생활습관을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고학년과 남아들의 기본생활습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생활습관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유권중, 박충식 (2001). 유교 심성론에 근거한 체화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2(4), 315-330.
- 경기도 교육청 (1991). *기본생활 습관지도*. 경기도 교육청.
- 교육부 (1994).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 (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I)-국어, 도덕, 사회*.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명자 (2001).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기본생활습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자 (2000). 가정과 연계한 유아의 기본생

- 활습관 지도의 실제. 교육연구정보, 37, 47-60.
- 라현심 (2001).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관한 문헌 분석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점숙 (1992). 조선 시대 동몽교육의 방법적 원리. 아동학회지, 13(2), 113-128.
- 류철선 (2003). 사소절에 나타난 아동의 예절 교육론. 영유아교육연구, 6, 75-91.
- 문용린 (2005). 2005년 건강한 사회와 가정. 새 문안교회 교육 자료집.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1999). 월드컵 개최도시 문화시민의식수준 평가결과 보고서. 서울: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 박명순 (1999).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심리학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 교육심리연구, 13(2), 75-78.
- 박인숙 (1998). 소학의 기본생활교육과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생활교육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환 (1998). 유치원과 초등 1년 및 2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 (1994). 도덕성 확립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의 역할. 1994년도 한국유아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한국유아교육학회, 59-79.
- 박혜상 (2003). 사소절(士小節)에 나타난 기본생활습관 교육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인옥 (2002). 유아를 위한 전통 교육의 내용 분석. 유아교육논집, 6(1), 111-129.
- 신성자 (1998). 유치원의 전통예절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애 (1991). 격몽요결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 연구, 7, 83-114.
- 안인환 (1993). 유치원과 국민학교와의 연계지도를 통한 효율적인 바른생활습관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철수 (1983). 기본생활습관 교육. 교육경남, 80, 112-122.
- 연영아 (1993). 유아의 기본생활교육에 관한 교사의 태도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희 (1981). 생활의 예절: 사소절(士小節).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이상기 (2001). 동몽선습·계몽편. 서울: 전원문화사.
- 이애숙 (2000).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인성 교육 방안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 (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방인옥, 박찬옥 (1992). 유치원의 기본생활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회 유아교육연구, 12(1), 71-90.
- 이은화, 김희진, 이승연 (1996). 기본생활습관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6(2), 161-177.
- 임동근 (1983). 한국 효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현순 (1995). 기본생활교육활동이 유아의 절제 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근수 (2000). 유아의 기본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근영 (2003). 진주 지역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 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 관한 통계 분석. 경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 (1996). 세계화를 위한 '효'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모색.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연구보고서.
- 정현아 (1994). 유아의 기본생활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순 (1994).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자료 제작, 활용방법. 경기교육, 125, 104-108.
- 채무송 (1995). 효 사상과 미래사회. 성남: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 한광옥 (1999). 재미있는 소학. 서울: 풀잎.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5). 유치원 교육 평가 연구: 기본생활습관 평가.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정광 (1995). 기본생활습관 형성. 교육경남, 123, 108-110.
- Andrew, M. (2001). Teacher efficacy and character education.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April 10-14*, 2-34.
- Bloom, B. S. (1961).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Wiley.
- Brooks-Gunn, J., & Reiter, E. O. (1990). the role of pubertal processes.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ns, M. T. (2003). Use manners to teach civilized behavior. *Educ Dig*, 68(9), 22-27.
- Byrne, B. M. (1996). *measuring self-concept across the life span: Issues and instrumentation*.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arr, J. E., Austin, J. L., Britton, L. N., Kellum, K. K., & Bailey, J. S. (1999). An assessment of social validity trends in applied behavior analysis. *Behavioral Interventions*, 14(4), 223-232.
- Damon, W. (1995). *Greater expectations: America's homes and schools*. New York: The Free Press.
- Damon, W. (1995). *Greater expectations: America's homes and schools*. New York: The Free Press.
- David, B., & Gary, M. (2001). *Enhancing students' soci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National Association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Alexandria, VA.
-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ather Fanagan's Boys' Home(1992). *Basis social skills for youth*. The Boys Town Press.
- Gelman, R. (1969). Conservation acquisition: A problem of learning to attend to relevant attribut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 167-187.
- Inhelder, B., & Piaget, J. (1958). *The growth of logical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Basic Books.
- Kim, J., Lee, Y., Suen, H., & Lee, K. (2002). A delphi study of young children's readiness in Korea: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schooling.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 Kim, J., Lee, Y., Suen, H., & Lee, K. (2002). A delphi study of young children's readiness in Korea: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early

- childhood schooling.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 Kuhmerker, L. (1991). *The Kohlberg legacy for helping professions*. Birmingham: R.E.P. Books.
- Lloyd, J. W., & Heubusch, J. D. (1996). Issues of social validation in research on serving individuals with emotional or behavioral disorders. *Behavioral Disorders*, 22(1), 8-14.
- Marg, D., Adam, P., & Mark, V. (2002). *Character education effectiveness*. Saint Xavier University.
- Marlow, E. (1998). Character education and the elementary curriculum. *Opinion Papers*, 120, 2-11.
- Merrell, K. W., & Gimpel, G. A. (1998). Social skill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treatment. NJ: LEA.
- Storey, K., & Horner, R. H. (1991). An evaluative review of social validation research involving persons with handicap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5(3), 352-401.
- Texas Education Agency, Austin. (2000). *Building good citizens for Texas: Character education resource guide, Elementary school*. Texas Education Agency, Austin.
- Warash, B. G., & Lazorchak, S. A. (1999). The role of etiquette in social skill development of preschoolers. *The Delta Kappa Gamma Bulletin*, 65(3), 41-46.
- William, G. W. (1998). *Democratic leadership in classroom: Theory into practice*. Czech National Civic Education Conference.
- Wolf, M. M. (1978). Social validity: The case for subjective measurement or how applied behavior analysis is finding its heart.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1(2), 203-214.
- 1 차원고접수 : 2006. 04. 01.
수정원고접수 : 2006. 05. 22.
최종게재결정 : 2006. 06. 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Basic Life Habits Inventory for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Jin Eom

OckBoo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Basic Life Habits Inventory for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374 children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respectively by Cronbach Alpha, split-half reliability, test-retest reliability, an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1) The preliminary Basic Life Habits Inventory was consisted of 14 subconstructs: Greeting, language, discipline, faithfulness, honesty, cleanliness, self-independence, responsibility, organization, frugality, health, filial piety, rule observation, and patriotism. 2) Content validity and social validity were confirmed by two groups of experts. Construct validity of the Basic Life Habits Inventory was supported by factor analyses. From the results, seven new constructs emerged: 'Order-manners', 'organization', 'faithfulness and responsibility', 'manners', 'health', 'cleanliness', and 'self-independence'. 3) Reliability of the Basic Life Habits Inventory was examined by using Cronbach Alpha, split-half reliability, and test-retest reliability. According to the results, reliability of the Basic Life Habits Inventory components ranged from .675 to .922 and the statistical index can therefore be considered large.

Keywords : basic life habits, inventory development, validation, reliability, validity